

도 산하 공기기업·기관 부실경영 질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관광공사 면세점 실패 집중 최승현 부지사 “지방공기업 혁신·책임 묻는 제도 필요”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부실 경영, 책임 경영 외면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추궁됐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기관장들의 성과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와 필요성을 피력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8회 임시회가 속개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됐다. >> 관련기사 2·5면

이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경영’ 문제를 거론했다.

우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관광공사의 267억원의 손실을 입고 철수한 시내면세점 사업과 99억원을 투입해놓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항만면세점 문제, 증가하는 운영비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대한 최 부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최 부지사는 “여러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경영을 잘못된 거라고 본다”면서 “산하 공기기업이 혁신할 때가 됐다.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 새로운 혁신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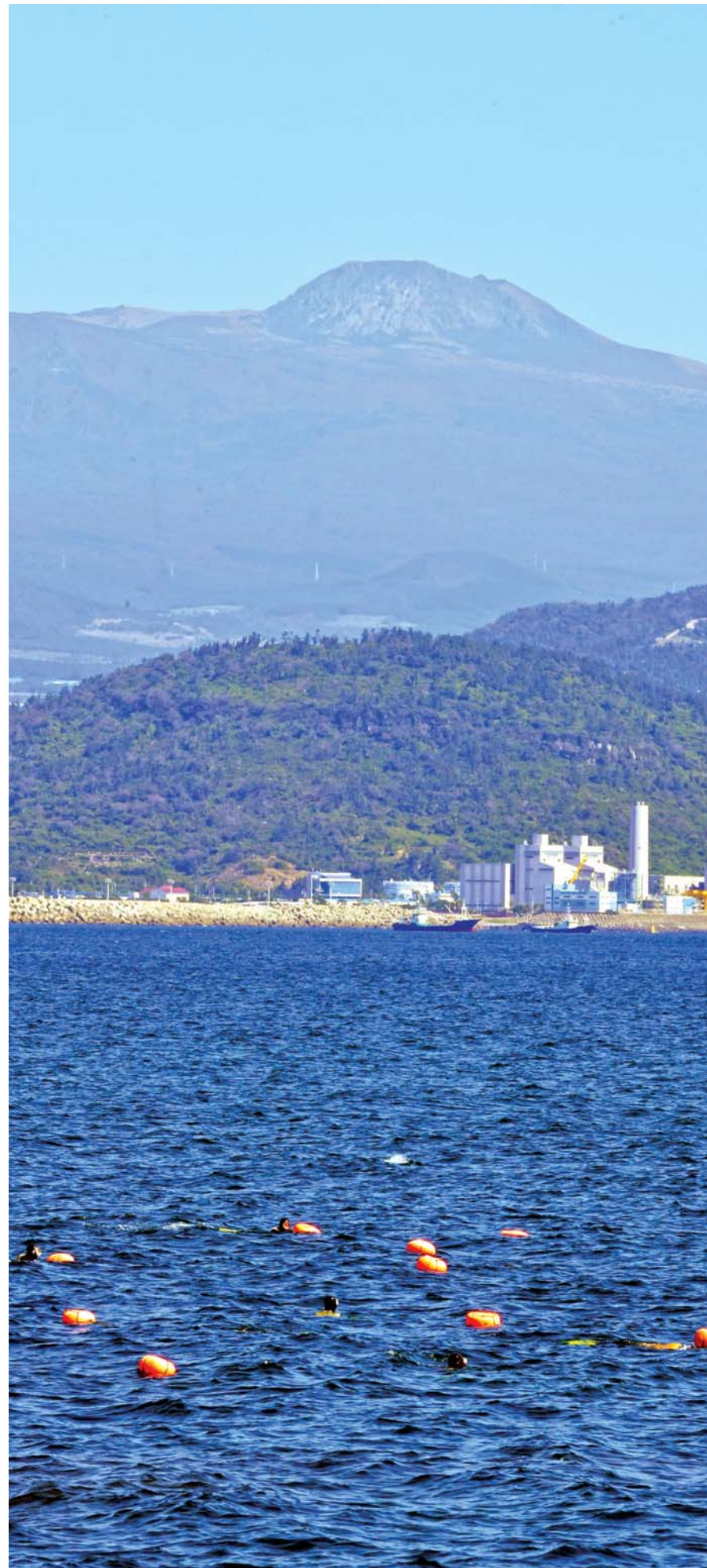
양·봉개동)은 기관장의 ‘책임 경영’ 외면과 경영부실이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 지사가 임명해놓고 방치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실패와 적자운영,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점 매입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지사가 인사는 할 수 있는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임명했을 때는 성과를 내라고 한거다. 성과를 안내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제38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

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능력, 경영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외부환경탓으로만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 행감에서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옹두사미 우려,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 마련, 제주지역 난개발 가속화에 대한 원도정의 책임론,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유명무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초지 전용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파란 가을 하늘아래 한라산과 물질하는 해녀 14일 서귀포시 대정읍 산이수동 앞바다에서 일렁이는 물결 위로 노란 테왁을 띄우고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점점 보이는 가운데 파란 하늘과 한라산의 선명한 자태가 함께 어우러져 제주의 정서와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공택지개발 차일피일 미루다 난개발 가속”

김희현 의원 “원도정 책임” 도 “내년 2곳 타당성 검토”

수년째 지지부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제주지역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처음으로 공공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택 수요가 제주 중산간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2015년부터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당시 원희룡 지사는 택지개발 후보지를 늦어도 2017년까지 발표하겠다고 했고,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러 김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결국은 제주 중산간 지역 등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에 따라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자연녹지에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도로 확장도 상수도 문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파괴도

문제지만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도시비용이 과다 발생해 관리효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동의한다. 2015년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많이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제주시권이나 서귀포시권에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이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로 주택이 많이 지어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난개발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지않으니 녹지지역에 난개발식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들어되면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택지개발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고 국장은 “의지가 있다. 지금 도내에 미분양 주택 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연 4000호 정도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속 하겠다고 해놓고 5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이래선 안 된다. 난개발 통감해서 지금이라도 환경보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내년부터 2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선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 유·초·중·고 90% 전체등교 가능... 나머지는 밀집도 2/3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제주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유·초·중·고 밀집도를 2/3 이내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

에 ▷유치원·초등학교 900명 미만 ▷중학교 700명 미만 ▷제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외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9일부터

도내 유·초등학교 중 900명 미만 학교, 중학교 700명 미만 학교,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외 고등학교는 전체 등교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한 상태로 등교 수업

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등교가 가능한 학교 현황을 보면 유치원 122개원, 초등학교 98교, 중학교 36교, 고등학교 22교 등 총 278개교가 해당된다. 이는 전체 311개교(유 123·초 113·중 45·고 30) 가운데 89.3%(278교)에 달하는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20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드라이브 스루 마켓플레이스

✓ 일시 2020. 10. 31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

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0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이 오는 10월 31일(토)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청정 제주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과 2차 가공품을 만나볼 수 있는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맛봅서!

제주 향토음식
빙떡 무료 시식

드라이브 스루로 현장에서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즐겁서!

차안에서 즐기는 즐겁고
유쾌한 드라이브 인 콘서트

제주의 대표 밴드 사우스카니발, 트로트 가수, 제주전통문화공연

받양갑서!

푸짐한
경품 이벤트

행사 진행 중 추첨을 통해
메이드인 제주 특산물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행사(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유증상자들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주최 | 제주일보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행사

보조금액 : 10,800만원

보조사업자 : (주)제주일보